

막 오르는 국감...野 '파상공세' 與 '민생공세'

7일부터 3주간...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방위 공방 예고 여,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야 "청문회 등 모든 조치"

21대 국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고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라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신이 소환된 게 확실하

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지?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에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추미에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

이낙연 vs 이재명 대권경쟁 치열 각종 여론조사서 1·2위 앞치락 뒤치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7~28일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의 선호도는 26.4%로 1위였다. 2위는 23.2%인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8%), 무소속 홍준표 의원(5.5%), 오세훈 전 서울시장(3.1%), 정의당 심상정 대표(2.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8%),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7%), 원희룡 제주지사(1.7%) 등 순이었다.

KBS가 케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26.2%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1.6%로 집계됐다. 이밖에

홍준표 의원(5.8%), 안철수 대표(4.6%), 오세훈 전 시장(3.5%), 황교안 전 대표(2.3%), 유승민 전 의원(1.9%), 원희룡 지사(1.6%), 심상정 대표(1.4%),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부와 함께 지난달 26~29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여야 대권주자의 개인별 호감도는 이재명 지사가 54%, 이낙연 대표가 53%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35%,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대표는 각각 34%였다.

비호감도는 황교안 전 대표(64%), 홍준표 의원(63%), 추미에 법무부 장관(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57%), 유승민 전 의원(56%), 안철수 대표(54%) 등 순으로 높았다. 이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태년 "野, 공수처 출범 협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천 여부 한달내 가닥

'서울·부산시장' 대선급 선거 포기 어려워... 이번달 실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조만간 실무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선거위원을 제공한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현행 당규 때문에 공천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없는 만큼 조기 정면돌파 카드를 택한 셈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아직 재보선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공천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오래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며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이른 시일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실무라인에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는 공천 방침을 세워야 당헌·당규 개정, 후보 적합도 조사, 공천 경선 등 실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보선은 이낙연 대표의 6개월 임기가 끝난 뒤에 치러진다. 그러나 현 지도부 체제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를 내는 만큼 재보선 결과의 책임은 상당 부분 이 대표에게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며 미리부터 공을 들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공천 여부, 당헌 개정 여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앞서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표가 '늦

여의도 브리핑

이재호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비 2503억 확보'

지난 8월 최고 6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총 2503억원에 이르는 국비가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4일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개 군과 공동노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복구 국비 2464억,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139억 등 총 250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담양군에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1331억과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84억 등 1415억이 지원된다. 또 장성군에는 국비 64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33억 등 675억, 영광군에 국비 339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18억 등 357억, 함평군에 국비 15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4억 등 156억 원이 수해 피해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담양군에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1331억과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84억 등 1415억이 지원된다. 또 장성군에는 국비 64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33억 등 675억, 영광군에 국비 339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18억 등 357억, 함평군에 국비 15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4억 등 156억 원이 수해 피해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주철현 "김치 무역수지, 11년만에 261만달러 흑자"

코로나 19 이후 김치 무역수지가 1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치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2억6895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면서 "올해는 8월 말 기준, 수출은 9791만 달러, 수입은 9530만 달러로 11년 만에 26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코로나19로 김치가 세



계시장에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김치 무역수지도 모처럼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김치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도모와 종합적인 김치산업의 육성·홍보·수출을 전담할 김치산업진흥원을 신설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